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매개효과 모형*

김동일(金東一)
김명찬(金明瓚)**
남지은(南知恩)
강은비(姜恩妃)
오지원(吳旨苑)
장정현(張禎玪)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G시의 6개 고등학교 학생 300명(남자 139명, 여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에서는 개별 관측변수가 신뢰성이 있으며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모형 또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계된 연구모형이 변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통해 학업미루기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상담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자기조절학습전략

*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지원을 받아 진행된 논문임(NRF 2010-B00218).

** 교신저자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긴장과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 수행 및 경험 등을 행할 때에 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된다(정철상, 2011). 여러 발달과업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학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입시위주의 교육, 대입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사교육 열풍 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학업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심우엽, 2001; 이서원, 장용언, 2011; 전영주, 이숙현, 2000; 정철상, 2011).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이 가진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부터 학업 부적응, 나아가 학교 부적응,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탐색하여 그에 대해 적절히 예방하고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미루기 행동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일 뿐만 아니라 발달 과업으로서 적절한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 미루기는 학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병훈, 신희천, 2009). 학업미루기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시험, 과제 등의 목표 행동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Lay & Schouwenburg, 1993; Tuckman, 1991), 우울, 불안, 죄책감,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김광숙, 김정희, 2007; Johnson, 1992).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대략 15%에서 20%는 잠재력과 수행수준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Mandel & Marcus, 1988; McCall, Evahn, & Kratzer, 1992). 게다가 이러한 부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의 낮은 학업 수준의 핵심 요인이 미루기라고 응답하고 있다(Mandel & Marcus,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업미루기 행동 개선프로그램이 학업미루기 행동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고(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학업미루기 행동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추상엽, 임성문, 2007) 와도 일치한다. Owens 등(1997)은 연구 결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미루기 행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은 과제를 잘 끝마치지 못하고 과제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험공부를 늦게 시작하고 공부시간 역시 적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된 발달 과업인 학업과 관련하여 미루기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학업 수행과 성취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관한 연구는 학업 및 진학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정서적 취약함을 드러내기 쉽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미, 양난미(2011)는 학업미루기 행동이 외국의 경우 대학생들이 주로

가장 많이 공부하므로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업문제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대상이 고등학생 내지는 수험생 집단임을 감안하여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미루기 행동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내외적으로 어떤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단서를 얻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루기 행동은 주어진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으로 이러한 지연행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날 때 이를 학업미루기 행동이라고 한다(Ferrari, 2001). 미루기(procrastination)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루기 연구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The Cambridge dictionary)에 따르면 미루기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그것이 즐겁지 않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결을 늦추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Procter, 1995). 즉, 미루기 행동의 원인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지와 정서를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과제 특성이 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콜린스 코빌드(Collins Cobuild) 사전에 따르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느린 사람'이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Sinclair, 1987). 이것은 미루기 행동이 과제 특징에 좌우되기 보다는 개인 특성이나 성격에 기인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사전적 관점을 정리하면, 미루기란 크게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또는 성격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

1970년대 이후 미루기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면서(신을진, 고진경, 2011), 여러 연구자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되는 측면을 부각시키며 미루기의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였다. 미루기와 관련한 정의로는 예정된 시간까지 과제와 활동을 미루는 행동적 측면(Ellis & Knaus, 1977), 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 경향을 강조한 인지적 측면(Lay, 1986), 두려움이나 불안에 직면하는 것을 보호해주는 전략으로서 정서적 측면(Burka & Yuen, 1983) 등이 있다. 좀 더 최근의 연구 경향은 미루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미루기 행동이 자기조절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Ferrari(1991)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많이 미루며, 학업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고, Sommer(1990) 또한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계산된 미루기 행동, 준비된 불안, 최절정의 벼락치기, 직전에 결정내리기, 그리고 축하받을 만한 성과라는 행동 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 미루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미루기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미루기 유형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제안하게 되었다(Alexander & Onwuegbuzie, 2007; Choi & Moran, 2009; Chu & Choi, 2005; Corkin, Yu, Lindt, 2011; Howell & Watson, 2007; Schraw, Wadkins & Olafson, 2007). Chu와 Choi(2005)는 미루기 유형을 수동과 능동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능동 유형들은 수동 유형과 비슷한 정도의 미루기 행동을 하지만, 의도적인 시간 사용, 시간 통제력, 자기효능감, 대처 유형, 스트레스, 절망, 삶의 만족도, GPA 등에서 일반학생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Chu & Choi, 2005). 후속

연구들에서도 능동 유형은 시간에 대해 유동적이고 융통적인 개념을 가지며,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더 크다고 느끼고, 한 번에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기가 인식한 성과가 좋다고 보고하였다(Choi & Moran, 2009).

미루기 행동과 관련한 주제들로는 과제 특성이나 상황에 따른 미루기 행동(Blunt & Pychyl, 2000; Ferrari & Scher, 2000; Lay, 1992) 연구들이 있고,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미루기 연구는 주로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Mishkel & Shoda, 1998).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미루기 행동이 주로 개인 내적 변인들 - 자아개념(김광숙, 김정희, 2007; 한영숙, 2011), 성격 유형(김광숙, 김정희, 2007), 통제 소재(이은정, 2002), 자기조절학습능력(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완벽주의 성향(Chabaud, Ferrand, & Maury, 2010; 이미라, 2009; 이은정, 2002; 한영숙, 2011; 허효선, 2012) - 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루기를 안정적인 성격적 기질로 본다면 문제 행동에 대한 개입전략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 미루기를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간주한 연구들은 미루기를 실제의 일이나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행동으로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Longergan & Maher, 2000; Tice & Baumeister, 1997; 배병훈, 신희천, 2009).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미루기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미루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미루기를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인적 행동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맥락 변인과 개인 변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한 맥락 변인으로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부모, 친구, 교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변인 중에서 부모양육태도는 지속적으로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Pychyl, Coplan과 Reid(2002)은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를 언급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대신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발달 이론과 선행의 연구들에 근거해 부모의 영향이 여전히 중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학업미루기 행동과 부모양육태도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거부적 태도, 아버지의 돌봄적 태도 등이 미루기와 관계되어 있음이 나타났다(Voicu, 1992). Ferrai와 Olivette(1993)은 부모 권위 유형이 미루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권위적이라고 지각할 경우 높은 미루기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아버지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미루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errari, Harriot과 Zimmerman(1999)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크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루기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 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미

루기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해준다고 여기는 학생은 미루기 행동을 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미루기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Pychyl, Coplan과 Reid(2002)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는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학업미루기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문(2006)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으로 형성된 초기 부적응도식과 미루기 행동 간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삶에 깊이 관여하거나 과잉보호하며 또는 지나칠 정도의 무한한 자유와 자율성을 줄 때 미루기 행동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물로 리뷰 연구를 통해 일련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Schouwenburg 등(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비판적 태도'는 학업미루기와 .24의 정적 상관을, 수행에 대한 기대는 .21의 정적 상관을 유의하게 나타내고 있다. 황임숙, 장성숙(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여학생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Pychyl, Coplan과 Reid(2002)에 따르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개인 변인을 통해 매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대표적인 개인 변인으로 자아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연구에 적용하였다. 자아개념은 부모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동시에 학업미루기 행동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 중에서도 학업미루기 행동과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들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ion learning)은 학습자가 어떻게 자신의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가에 관련한 것으로 행동에서 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 전략이란 인지·동기·정서·행동 그리고 맥락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활용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 동기로 학습하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을 최적화하고 연습을 통해 학습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간다(방선욱, 2009). 이러한 개념은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수행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변인임을 알게 해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정애(2010)는 아버지의 성취, 애정 태도와 어머니의 애정, 성취, 자율 태도가 자기조절학습전략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결과는 자녀의 성취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양육태도의 경우는 어머니에게서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민주(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의 관계를 연구한 윤석진(2008)의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태도가 자녀의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자녀의 성취를 기대하고 자극할 때 자녀들은 높은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은 학업미루기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 중의 하나이다(Schouwenburg, 1994).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업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미루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규준이나 목표 세팅에 취약하고 결핍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uwenburg et al., 2004). 학업 영역에서 미루기 행동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약하거나 결핍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신을진, 고진경, 2011). 학업에서 미루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며(추상엽, 임성문, 2007; Howell & Watson, 2007; Wolters, 2003),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u & Choi, 2005; Saddler & Buley, 1999). 또한 행동적 영역에서는 시간관리 기술 및 자원관리전략이 부족하다(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Lay, 1992). 신을진, 고진경(2011)은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업미루기를 하는 집단은 의도적으로 미루기 행동을 하고, 과제의 마감능력에서 평균이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2005)는 학업미루기 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관계연구를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미루기 행동의 42%를 설명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정서, 행동 전략 중에서 학업미루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전략 영역은 행동 전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미루기가 적절한 시점에서의 수행과 관련한 행동적 측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 변인에 해당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미루기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 변인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학업미루기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 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변인 간 관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매개한다는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학업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개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부모양육태도보다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다룸으로써 청소년의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변인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인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담학 전공 연구자 5인이 3회에 걸쳐 문항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설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정식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경기도 00시의 6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고등학교의 1~3학년 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에서 315부가 수거 되었다. 315부 중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24명(74.7%), 2학년 63명(21%), 3학년 13명(4.2%)이며, 남학생은 139명(46.3%), 여학생은 161명(56.7%)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양육태도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과 성취 변인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 학습 간의 선행연구(정정애, 2010)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공통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하위 변인으로 성취 변인이 나타났다는 것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상엽, 임성문(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격려와 미루기 간의 유의한 부적 관계 등이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입시교육 등의 영향으로 고등학생들의 학업 자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학업 관련 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고등학생들의 유의한 변인 관계를 고려하여 자율과 성취 변인 두 가지를 부와 모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역채점 문항은 총 15문항이다. 합산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허용적이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고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주(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4에서 .84사이에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성취가 .71, 자율이 .86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87을 나타냈다.

2)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이 제작한 자기조절학습전략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활용), 동기조절(숙달목표지향,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 구하기)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조절과 행동조절 영역의 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지와 행동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외현적인 요소들이고,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학업미루기 행동이 실제적인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지조절 영역은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동조절 영역은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역채점 문항은 4문항이다. 자기조절학습전략 총점이 높다는 것은 학습 장면에서 다양한 인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며 적절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조절 영역 중 '인지전략' 관련 문항으로는 "어려운 개념은 쉬운 말로 풀어서 바꾸어 생각해 본다", '메타인지전략의 활용' 관련 문항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얼마나 공부할지 미리 머릿속으로 계획한다", 행동조절 영역에서의 '행동통제' 부분은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내려고 최선을 다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업시간관리'의 영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계획을 자주 세운다" 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도움구하기' 부분의 예로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아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명선(2009)의 연구에서 두 영역의 Cronbach's α 가 .66과 .81 사이에 존재하

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인지조절 .86, 행동조절 .87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91로 나타났다.

3) 학업미루기

학업미루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루기 행동 평가 척도 PASS(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 for Studen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olomon과 Rothblum(1984)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윤숙경(1996)이 번안하고 김연실(2000)이 정리하였다. PASS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루기 행동이 6개의 학업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나타나며(빈도; 예, 보고서 쓰는 일을 어느 정도 미루니까?), 미루기 행동에 대해 스스로 문제로 느끼는 정도(문제; 예, 보고서 쓰는 일을 미루는 것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문제로 느껴집니까?)를 평가하는 것으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보고서 제출 미루기 상황'을 상상하면서 지연행동을 하는 이유를 5점 척도 - 1점: 내가 미루는 이유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5점: 내가 미루는 이유를 분명히 나타낸다 -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예, 보고서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하여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미루기의 빈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미루기 행동 자체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고 그러한 미루기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부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첫 번째 부분 중 학교행정 영역에 해당되는 - 수강신청, 등록, 도서 대출증, ID카드 발급 등 - 문항(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을 얼마나 미루니까?)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 5개 영역 - 숙제, 시험공부, 연습, 수업에의 지각, 학교에서의 활동 전반 - 10문항을 사용하였고 역채점 문항은 없었다. 10개 문항 중 대학생에게만 적용되고 고등학생에게는 부적절한 문항은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였다(예, '보고서 쓰는 일을 어느 정도 미루니까?'를 '평소에 숙제하는 일은 어느 정도 미루니까?'로). 학업미루기 행동 척도는 이론적 하위 요인이 없는 단일요인 척도인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인은 그 변인을 측정하는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et al.(1998)의 제안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여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을 구성한 후 분석하였다. 관측변수 임에도 하위 문항 묶음을 한 이유는 첫째, 비록 관측변수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그러하듯 이러한 변수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관측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측정오차가 없는 것으로 가정되어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문항 묶음을 임의(random) 묶음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문항들을 임의로 배치할 경우 통계적으로 각 묶음 속에 배치된 문항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 전략, 학업미루기 관련변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충족될 경우,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검증 결과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자료의 정상성 평가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율	1.33	5.00	3.53	.60	-.573	.592
성취	2.07	4.60	3.59	.45	-.401	.384
인지조절	1.50	4.69	3.47	.53	-.418	.494
행동조절	1.88	4.69	3.37	.47	.131	.197
학업미루기A	1.14	5.00	3.20	.66	-.197	.082
학업미루기B	1.17	4.50	2.59	.60	.231	.152
학업미루기C	1.00	4.60	2.29	.64	.279	.093

2.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표 2), 부모양육태도 중 자율 변인은 성취, 인지조절, 행동조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학업미루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취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학업미루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조절학습전략 변인들 역시 학업미루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미루기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자율	1						
성취	.622**	1					
인지조절	.140*	.231**	1				
행동조절	.146*	.309**	.598**	1			
학업미루기A	-.164**	-.274**	-.246**	-.574**	1		
학업미루기B	-.157**	-.278**	-.412**	-.575**	.545**	1	
학업미루기C	-.056	-.203**	-.161**	-.263**	.290**	.407**	1

주. n=300, 1=자율, 2=성취, 3=인지조절, 4=행동조절, 5=학업미루기A, 6=학업미루기B, 7=학업미루기C
* $p < .05$, ** $p < .01$

3.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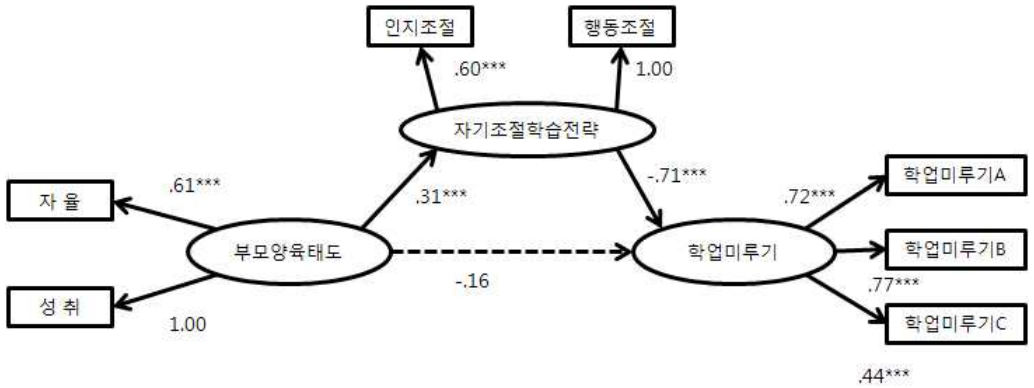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부모양육태도, 학업미루기, 자기조절학습전략 등은 모두 잠재변수로 측정변인들이 이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의 모든 요인 값은 유의미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모형 적합도 지수는 $X^2 = 30.02(df = 13, p < .01)$, RMSEA = .066, GFI = .973, AGFI = CFI = .973, TLI = .957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GFI, AGFI, CFI, TLI는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이 모두 .90이상이며 RMSEA는 .05 ~ .08의 범위에서 수용한다.

<표 3> 모형의 적합도 지수

	X^2	df	RMSEA	GFI	AGFI	CFI	TLI
모형 계수	30.02**	13	.066	.973	.941	.973	.957

** $p < .01$, *** $p < .001$



<그림 2> 최종모형 경로계수

매개모형 검증에 앞서 초기 모형을 설정하여 나온 분석 결과에서 오차분산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에 해당한다(Kolenikov & Bollen, 2012). 본 연구에서도 e2(성취의 측정오차), e4(행동조절의 측정오차)가 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 변수의 측정오차가 0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러한 현상은 표본의 크기가 100보다 작고, 잠재변인의 관측변수가 2개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관측변인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차분산값을 매우 작은 값인 0.005로 고정해야 한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도 오차항 2와 4의 분산값을 모두 0.005로 고정한 후 분석하였다.

매개모형 검증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에서 자율과 성취 수준이 높으면 자기조절학습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beta = .31, p < .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때 학업미루기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01$).

<표 4> 주요 측정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 총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학습전략	.31***	-	.31***
자기조절학습전략 → 학업미루기	-.71***	-	-.71***
부모양육태도 → 학업미루기	-.16	-.22***	-.22***

*** $p < .001$

4. 간접효과 검증

다음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검증 결과 $Zab = -4.322$, $p < .001$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고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의 관계를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결과가 상담의 실제에 주는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성취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 등의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준 윤석진(2008)의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인지와 초인지전략 뿐만 아니라 행동조절과도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부모의 자율과 성취를 강조하는 집안의 자녀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간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않고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미루기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황임숙, 장성숙, 2010; Ferrari & Olivette, 1993; Ferrari, Harriot & Zimmerman, 1999; Voicu, 1992)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업미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자기조절학습전략과 같이 학업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개입되는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비교적 어릴 적부터 형성되어온 초기 부적응도식과 학업미루기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임성문, 2006)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루기 행동이 심각한 발달적 기원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 3의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의 제언대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함을 보여 주며, 구체적으로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미루기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이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점은 학업미루기 행동이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 상황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루기 행동이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행동이라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배병훈, 신희천, 2009; Tice & Baumeister, 1997; Wolters, 2003). 특히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지능과 같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개인적인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Cross et al., 1988). 따라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은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김형수, 김동일(2007)의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개발된 전체 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편으로 전체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의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학업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기조절학습전략의 하위 구성 요인들인 인지전략, 초인지전략,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 등의 전략 등이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미루기 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은 시연, 정교화, 조직화, 암기 등 인지 전략을 덜 사용하고, 시간 관리와 행동통제 등의 노력을 덜 한다고 보고한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습, 숙제, 시험공부 등을 습관적

으로 미루는 학생들은 적절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험공부를 끝까지 미루는 학생의 경우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보았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어려운 내용의 경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학업을 위한 시간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루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공부나 숙제를 할 때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부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연습을 해본다거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찬찬히 반복해서 교재를 읽어보거나,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자신만의 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의 실천을 함께 점검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학업미루기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에서 참여자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가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중 224명(74.7%)이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고른 표집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미루기와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의해 완전매개 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미루기 행동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학습전략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초등학교 중학년 이후의 과정에서 학업미루기와 자기조절학습전략 그리고 초등학생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학업미루기 행동을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정의에 근거하였다. 동일한 미루기 행동이더라도 좀 더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반영한 연구 모형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업미루기 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유의한 관계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 미루기 행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불안 등의 학업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학업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절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이 학업미루기 행동과 더불어 학업 스트레스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미루기 행동을 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도 비교적 덜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2). 부모의 초기 권위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9(3), 37-55.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33-947.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만권, 이기학 (2003). 자기조절학습전략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91-504.
- 김명선 (2009). **과학영재의 강점지능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김연실 (2000). **부모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은주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김형수, 김동일 (2007). 메타분석에 기초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 탐색. **상담학연구**, 8(2), 719-936.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김희정 (2010).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통**.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방선욱 (2009). 자기조절학습과 자기효능감 연구의 교육적 함의. **교육사상연구**, 23(2), 103-123.
- 배병훈, 신희천 (2009). 자기결정성과 학업 꾸물거림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중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747-764.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서은희, 김은경 (2012). 대학생의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몰입경험의 차이. **교육심리학회**, 26(2), 377-390.
-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3(4), 277-292.
- 신명희, 이해원 (2010).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1(2), 113-134.

- 신을진, 고진경 (2011). 능동-수동지연행동과 자기조절학습전략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2(2), 25-47.
- 심우엽 (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3), 19-44.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0-32.
- 윤석진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전략 및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미라 (2009).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동기 수준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8(2), 363-377.
- 이서원, 장용언 (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11-136.
- 이수미,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은정 (2002).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및 통제소재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 장세나, 정미선, 문두호 (2009). 웹 기반 자기조절학습전략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자기조절학습능력, 과학 불안 및 생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48(3), 1-14.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민주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과 자기결정동기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정애 (2010).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91-1202.
- 정철상 (2011). 고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9), 1-18.
- 추상엽, 임성문 (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와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497-5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http://www.classroom.re.kr/2011/main.jsp?mcode=22>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허효선 (2012).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황임숙, 장성숙 (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학생생활상담*, 28, 25-43.
- Alexander, E. S., & Onwuegbuzie, A. J. (2007).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he role of hope as a coping strate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301-1310.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lunt, A. K. & Pychyl, T. A. (2000). Task aversiveness and procrastination: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ask aversiveness across stages of personal proje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1), 153-167.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Addison-Wesley.
- Carver, C. S., & Scheier, M. F. (1998). *On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baud, P., Ferrand, C., & Maury, J. (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undergraduate student athletes: The roles of perfectionism and trait anxiety on perception of procrastination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8, 1041-1056.
- Choi, J. N., & Moran, S. V. (2009). Why not procrastinat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active procrastination scal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2), 195-211.
- Chu, A. H. C., & Choi, J. N. (2005). Rethinking procrastination: positive effects of "active" procrastination behavior on attitudes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245-264.
- Corkin, D. M., Yu, S. L., & Lindt, S. F. (2011). Comparing active delay and procrastination from a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5), 602-606.
- Corkin, D. M., Yu, S. L., & Lindt, S. F. (2011). Comparing active delay and procrastination from a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5), 602-606.
- Cross, D. R. & Paris, S. G. (1988). Developmental and instructional analyses of children's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2), 131-14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Rev. ed.)*.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Ferrari J. R. & Scher, S. J. (2000).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nd non academic tasks procrastinated by students: The use of daily logs. *Psychology in the Schools, 37*(4): 359-366.
- Ferrari, J. R. (1991). Self-handicapping by procrastinators: protecting self-esteem, social-esteem, or bo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3), 245-261.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406.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3).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in 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112), 963-970.
- Ferrari, J. R., Harriot, J. S., & Zimmerman, M. (1999).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procrastinators: Friends of family of trou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6*, 321-331.
- Ferrari, J. R., Parker, J. T., & Ware, C. B. (1992).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correlates with Myers-Briggs types, self-efficacy, and academic locus of control.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495-502.
- Howell, A. J. & Watson, D. C. (2007).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167-178.
- Johnson, J. L. (1992). *The SS-77. A Measure of Psychological symptom severity*. Princeton, NJ: NorthShore Press.
- Kolenikov, Stanislav., & Bollen, Kenneth A. (2012). Testing Negative Error Variances: Is a Heywood Case a Symptom of Misspecification?.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41*(1), 124-167.
- Lay, C. H. & Schouwenburg, H. C. (1993). Trait procrastination, time management, and academic behavior.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 647.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4), 474-495.
- Lay, C. H. (1992). Trait procrastination and the perception of person-task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 483-494.

- Lee, C. C. (2007). The relationship of family closenes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school. *College Student Journal*, 41(4), 779-787.
- Lonergan, J. M., & Maher, K. J.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workplace procrastination as moderated by locus of control.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213-224.
- Mandel, H. P., & Marcus, S. I. (1988). *The psychology of underachievement: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 New York: Wiley.
- McCall, R. B., Evahn, C., & Kratzer, L. (1992). *High school underachievers: What do they achieve as adults?* Newbury Park, CA: Sage.
- Mischel, W., & Shoda, Y. (1998). Reconciling processing dynamics and personality disposi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229-258.
- Owens, A. M., & Newbegin, I. (1997).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4), 869-887.
- Procter, P. (1995).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Melbourn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2), 271-285.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5(1), pp. 18-29.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 686-688.
- Schouwenburg, H. C. (1994). *Uitstelgedrag bij studenten "Academic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The Netherlands.
- Schouwenburg, H. C., Lay, C. H., Pychyl, T. A., & Ferrari, J. R. (2004).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Washington: APA.
- Schraw, G., Wadkins, T., &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2.
- Sinclair, J. (1987). *Collins COBUILD, Collins Birmingham University International Language Database : English language dictionary*. London : Collins.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olomon, L. J., & Rothblum, E. D.(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el, P., Brothen, T., & Wambach, C. (2001). Procrastination and personality, performance, and m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95-106.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7). Longitudinal study of procrastination,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dawdling. *Psychological Science, 8*, 454-458.
- Tuckman, B. W. (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473-480.
- Voicu, D. (1992).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lation to academic and general dispositional procrastination. Unpublished honor's thesis, York University. North York, Ontario, Canada.
- Wolters, C. A. (2003). Understanding procrastination from a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79-187.

* 논문접수 2013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3년 5월 24일 / 게재승인 2013년 6월 24일

* 김동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dikimedu@snu.ac.kr

* 김명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vitachan0@gmail.com

* 남지은: 미국 Wellesley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QoLT 교육지원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karin.nam@gmail.com

* 강은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eunbaa@naver.com

* 오지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북부Wee센터 상담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jiwonoh1206@gmail.com

* 장정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상담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 E-mail: evelyn0112@snu.ac.kr

Abstract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Kim, Dongil**

Kim, Myeung-Chan***

Nam, JeeEun Karin

Kang, Eunbi

Oh, Jiwon

Jang, Junghyun

The current study developed a model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ore specifically,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was examined as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ffected their academic procrastination. Three hundred students (139 male, 161 female) from six high schools located in the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via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wher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cted as a complete mediator.

Key word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cademic procrastinatio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Social Science Korea (SSK) project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10-B00218).

** First autho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